

양재R&D캠퍼스를 로봇 데이터 팩토리로 전환! 로봇 시 모델 고도화 추진!

연면적 1만평 규모 부지
연내 클로이드 300대 배치
데이터 축적 가속화

양재R&D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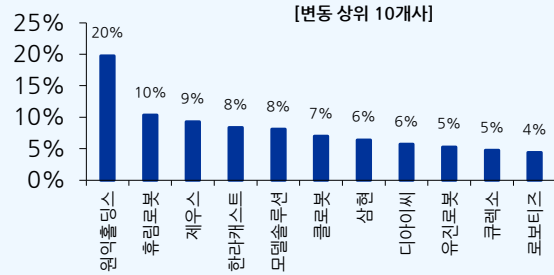
2030년까지 데이터 팩토리에 4,000억원 이상 투자 예정

데이터 기반 로봇 시 모델 고도화 추진

안녕하세요

로봇

데일리에요



로봇 주요 뉴스(06/11)

[국내]

- LG, 4,000억 들여 국내 첫 '로봇 훈련소' 짓는다
- LG CNS, LX판토스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도입
- 에스피지 "모든 로봇 기업서 러브콜"
- 빅웨이브로보틱스, 11~17일 기관 수요예측 진행
- 본시스템즈, 145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

[해외]

- 보스턴다이나믹스 임시 CEO, 佛파리 AI 행사 간다
- 보쉬, 이제 로봇 신경·관절·근육도 만든다
- 유니버설로봇, 협동로봇 누계 11만대 판매

Zoom-In

[LG도 로봇 훈련소]

- 양재R&D캠퍼스를 로봇 데이터 팩토리로 전환해 연면적 1만평 규모 부지에서 연내 클로이드 300대를 배치하여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할 계획. 2030년까지 데이터 팩토리에 4,000억원 이상 투자 예정으로 알려짐. 데이터 기반, 로봇 시 모델 고도화 추진.

트럼프, 美 방산업체 대표 소집! 무기 생산 신속 증대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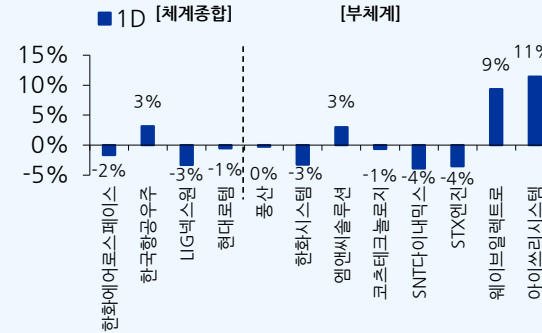
회의 내용: 무기 생산 신속 증대 방안 마련 압박

미국 무기 재고 상황
재고 vs 보충
빠른 무기 재고 소진
느린 보충 능력 노출

안녕하세요

방산

데일리에요



방산 주요 뉴스(06/11)

[국내]

- 폴란드 "현대로템 K2전차 1,000대 도입 변함없어"
- 인도, 4조원 규모 K9 바즈라 300문 추가 도입 추진
- KAI 사장 "한화 지분확대, 인수 아닌 사업협력"
- 李 "韓·伊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방산·우주협력"

[해외]

- 트럼프 "이란에 대한 폭격 및 공습 계획 취소"
- 트럼프, 미사일 고갈에 분노. 방산회사 7곳 CEO 호출
- 美 패트리어트 제조사 "공급 시기, 순서 못 정해"
- 무인전투기 MQ-28 최신행 첫 공개

Zoom-In

[미사일이 고갈된 미국]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미국 내 방산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회의할 예정. 7개 방산업체 대표가 무기 생산을 신속히 늘릴 방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을 전망. 미국의 빠른 무기 재고 소진과 느린 보충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한화오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우선협상자 선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우선협상자 선정

KDDX 선도함

선정 점수 차이(예정)

사업 규모 0.6점 차이 근소하게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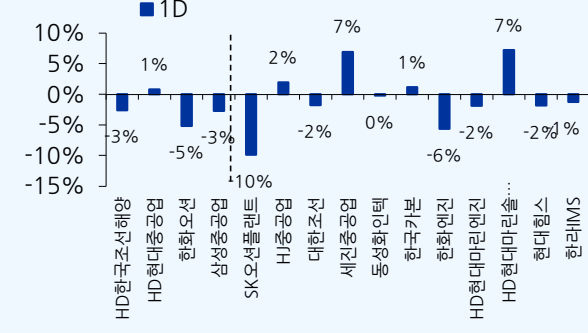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측 이의제기 가능성

KDDX 32년 선도함 배치, 36년까지 6척 전량 배치 계획

안녕하세요

조선

데일리에요



조선 주요 뉴스(06/11)

[국내]

- 한화오션, KDDX 우협 선정 '보안감점서 승부'
- 韓 오는 올트먼, 삼성과 전략 협업 논의 강화
- HD한국조선해양, 'AIX 추진실' 대대적 개편

[해외]

- TKMS "韓, 수출 경험 부족. 양해각서는 종이에 불과"
- 미 하원 세출위, 지원 함정 외국 건조 가능성 시사

Zoom-In

[KDDX, 한화 우협 선정]

- 한화오션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0.6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섬. KDDX는 32년 선도함 배치, 36년까지 6척 전량 배치 계획. 선정 점수 차이는 0.6점 수준으로 근소하여, HD현대중공업 측 이의제기 가능성은 변수.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선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선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제자료를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역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